K-water monthly magazine
SEPTEMBER 2014 vol. 561

물, 자연 그리고 사람



SPECIAL 경인 아라뱃길에서 즐기는
인천아시안게임과 유쾌 상쾌 위크엔드

아름다운 물길 여행 북한강변에서 만나는 작은 유럽
쁘띠 프랑스와 제이드 가든

K-water 캠페인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수돗물 캠페인
"몸에 좋은 건강한 수돗물, 마음 놓고 마셔요!"

K water

멕시코 남동부 유카탄(Yucatán) 반도 지하에 있는 수중 동굴 세노테 안젤리타(Cenote Angelita)는 천연 물웅덩이로 이루어졌다. 작은 천사(little angel)라는 뜻이 담긴 세노테 안젤리타는 29m 깊이까지는 담수가, 29~30m에는 황화수소층이, 30~60m에는 해수가 흐른다. 마야인의 식수이자 농사에 꼭 필요한 수원지이던 세노테 안젤리타. 마야인은 이곳을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닌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다. 천장의 뚫린 지표면에서 쏟아지는 햇살은 신비로운 분위기까지 자아낸다. 밀림 한가운데 둥그렇게 땅이 꺼져 있고 그 속엔 푸른빛이 도는 맑은 물이 고여 있다. 땅을 뚫고 내려온 나무뿌리와 빗물에 녹아 흘러내린 종유석 기둥이 물웅덩이를 신비롭게 장식하고 있다.

바닷속에 흐르는 강, 멕시코 수중 동굴 '세노테 안젤리타'







CONTENTS

September 2014 vol. 561

CULTURE & LIFE

명화로 만나는 물 **04**
이반 아이바좁스키

물, 그리고 사람 **16**
섬진강 화가 송만규

아름다운 물길 여행 **20**
쁘띠 프랑스와 제이드 가든

세계자연유산 **26**
빙하가 침식되어 생긴 골짜기, 피오르

K-water 캠페인 **28**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수돗물 캠페인

WITH K-water

K-water 핫이슈 **30**
가뭄에 대비하는 K-water의 유비무환 비책

K-water 사용 설명서 **32**
K-water 지역 상생 프로그램 가족 캠핑

물을 지키는 사람들 **34**
임진강건설단

아름다운 동행 **36**
K-water 태백권관리단의 안동하회마을 향토 문화 체험

행복 사진관 **38**
K-water 총무관리처 임상현 대리의 리마인드 웨딩

SPECIAL
경인 아라뱃길에서 즐기는 인천아시안게임과 유쾌 상쾌 위크엔드

경인 아라뱃길 즐기기 1.0 **8**
경인 아라뱃길에서 즐기는 인천아시안게임
아시아인의 축제, 아라뱃길에서 시작된다

경인 아라뱃길 즐기기 2.0 **10**
도심 속에서 즐기는 수상 레포츠의 메카
이렇게 재미있을 水가!

경인 아라뱃길 즐기기 3.0 **13**
흥과 정이 넘쳐나는 문화 예술 축제에 놀러 오세요
아라뱃길에서는 365일 축제가 열린다





창간일 1968년 8월 **통권** 561호 **발행일** 2014년 9월 5일 **발행처** K-water(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홍보실(042-629-2242) **제작 대행** 더북컴퍼니 **인쇄** 팩컴AAP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K-water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에 실린 글과 사진은 본지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위대한 자연의 힘과 인간 불굴의 의지를 바다에 천명

이반 아이바좁스키

이반 아이바좁스키는 러시아 회화의 별과 같은 존재이며 역사상 바다를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표현한 화가로 알려져 있다. 당대의 비평가들조차 그를 가리켜 "유럽에서 아이바좁스키처럼 풍부한 감성과 표현력으로 바다가 품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그린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에디터 양인실

'아홉 번째 파도(The Ninth Wave)'





'파도 속에서(Among the Waves)'



'폭풍우 치는 바다의 배(Ship in the Stormy Sea)'



'콘스탄티노플 석양(Constantinople Sunset)'

삶, 예술, 영혼으로 바다를 아름답게 표현

이반 콘스탄티노비치 아이바좁스키(Ivan Konstantinovich Aivazovsky) 그림의 주요 화제(畵題)는 폭풍의 바다다. 아이바좁스키의 그림에서 폭풍이 거대한 자연력을 상징한다면, 태양 빛은 부드럽게 모든 것을 감싼 자연의 로맨틱함과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자유와 불굴의 의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태양 빛이 비쳤을 때의 바다는 온화하고 로맨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의 모습은 그야말로 거대하고 광포한 자연의 힘이 모든 걸 삼켜버릴 것 같은 엄청난 힘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아이바좁스키의 그림에서 명암을 보았을 때 빛의 원천인 태양이 밝게 비추고 있는 것은 언제나 배와 난파된 배의 파편을 붙들고 있는 인간으로, 이는 거대한 자연의 힘을 견뎌내고자 하는 인간의 자유와 불굴의 의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대표작 '아홉 번째 파도'는 폭풍우가 지나간 후의 바다와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난파선 잔해에 몸을 의지하며 생존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유사한 주제의 작품들이 무겁고 차가운 색을 주조로 화면을 배색하는 데 비해 이 작품은 따스한 느낌의 색조가 캔버스를 수놓는다. '아홉 번째 파도'는 파도 중 가장 높은 것을 일컫는다. 화가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인간이 지닌 위대한 심성이라고 역설하는지도 모른다. 붉게 물든 하늘 너머 태양을 숨겨놓은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간을 대변한다. '파도 속에서'에서는 투명한 파도의 포말이 보이는데, 똑같은 파도의 움직임도 빛에 따라 변하는 색감을 아름답게 표현했다. 터키 이스탄불의 옛 지명인 콘스탄티노플의 항구 풍경을 그린 '콘스탄티노플 석양'에서 빛은 인간이 지닌 무한한 자유 의지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은 서양 회화 중 바다 풍경 대가들의 작품이 지닌 특징을 모두 담고 있다. 바다 풍경의 서막을 연 프랑스 화가 클로드 로랭의 빛의 계단을 표현한 방식, 영국의 낭만파 화가 윌리엄 터너의 격렬함, 독일 낭만주의 화가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숭고함, 미국 허드슨 강파를 이끈 알베르트 비어슈타트의 웅장함이 묻어난다. 따라서 그는 진정한 의미의 '바다 풍경 종결자'라 할 만하다. 이반 아이바좁스키는 평생 60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는데, 그를 가리켜 영국 화가 윌리엄 터너는 천재라 칭했고 프랑스의 외젠 들라크루아도 자신의 우상이라 말할 정도였다. W



18km 물길로 레저, 문화, 예술이 흐르다

경인 아라뱃길에서 즐기는 인천아시안게임과 유쾌 상쾌 위크엔드

경인 아라뱃길은 한강과 서해를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오갈 수 있는 운하다.
서울 개화동 한강에서 인천 오류동 서해까지 약 18km 물길로 이어진 국내 최초의 운하인 경인 아라뱃길에는
수향8경과 파크웨이 중심으로 다양하고 쾌적한 문화 공간이 들어서 시민의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다.



1.0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아시안게임이 개최된다. K-water는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인 아라뱃길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유람선을 타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가까운 시천터미널까지 단숨에 갈 수 있고, 국내 최초로 수륙양용자동차를 운행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2.0 아라김포여객터미널에 있는 아라마리나는 갑문을 조작함으로써 사계절 일정 수위가 유지되어 각종 수상 레포츠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또 수변 공간을 따라 조성한 41.3km의 자전거도로는 환상의 라이딩 코스. 유람선을 타고 수향8경을 돌아보고 국내 최초의 갑문을 체험하는 유람선 나들이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3.0 아름다운 수변 경관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예술 축제 등이 열리는 경인 아라뱃길이 수도권 제일의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의 시민이 생태 공원, 예술 공원, 전망대 등을 찾아 휴식을 취하고 문화 예술을 즐긴다. 경인 아라뱃길은 운하뿐 아니라 일상에 지친 시민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인 아라뱃길에서 즐기는 인천아시안게임

아시아인의 축제, 아라뱃길에서 시작된다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인천아시안게임'이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에서 열린다.
K-water는 인천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아라뱃길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에디터 이선민 **포토그래퍼** 홍하얀, 강민구, K-water



구경 가자~ 아라뱃길 성화 봉송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K-water가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에서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아시아 45개국 1만3000명이 참가하는 아시안게임이 개최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서울(1986년), 부산(2002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이다. 아시안게임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아시아의 우호 증진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탄생한 이래 올해로 17회째를 맞았다. 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총 36개 종목의 게임이 49개의 경기장에서 열리는데 인천시는 이를 위해 16개의 경기장을 신축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아시안게임 사상 첫 '퍼펙트 대회(아시아 45개국 모두 참여하는 대회)'로 치러질 예정이다. 북한 역시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아시아인들의 최대 축제인 인천아시안게임이 성황리에 개최되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은 성화봉송식이 지난 8월 12일, 아라뱃길을 따라 진행됐다. K-water와 인천 서구가 아시안게임 성공을 기원하며 강화도 마니산에서 이날 채화한 성화를 10여 척의 요트선단으로 봉송한 것. 아라자전거 지킴이와 승마단이 성화 뒤를 따르며 장관을 연출했다. 아라인천여객터미널 수역에서는 해양소년단이 딩기요트 20척으로 퍼레이드를 펼쳤고, 인천 주민이 참여해 성화 봉송을 환영하는 등 축제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다음날 이 성화는 인도 뉴델리에서 채화된 해외 성화와 합쳐지는 화합식을 갖고 전국 70개 시·군·구 약 5700km를 돈 뒤 개회식 당일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도착할 예정이다.

개막식이 열리는 9월 19일에는 전국을 돌고 온 성화가 주경기장 입장 전에 다시 한 번 아라뱃길을 통해 봉송되는데 K-water 최계운 사장과 아라뱃길 본부 직원이 직접 성화 봉송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인천 시민 이지민 씨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린다고 하니 매우 기쁘다"며 "역대 최고 규모로 열리는 만큼 반드시 성공적 개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라뱃길 아니면 즐길 수 없다
수륙양용 자동차 국내 최초 도입

인천시와 K-water 경인 아라뱃길본부는 인천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수륙양용 자동차 운행을 시작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화를 추진 중이다. 국내 최초로 도입한 수륙양용 자동차를 이용해 색다른 아라뱃길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아쿠아관광코리아(주)가 운항하는 수륙양용 자동차는 39인승 2대로 아라인천여객터미널 함상공원 인근에서 인천국제공항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으로 가는 2개 노선을 운행할 계획이다.

문의 무의도 해운(032-751-3354~6)



유람선 타고 아시안게임 보고 월미관광특구 투어까지!
아시안게임 워터 투어

현대유람선에서는 유람선을 타고 주경기장까지 갈 수 있는 아시안게임 워터 투어를 9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매일 운행한다. 유람선은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 아라인천여객터미널, 시천나루터를 운행하며, 승객은 국내 최초의 운하인 아라뱃길 갑문도 체험하고 선상 공연도 즐길 수 있다. 시천나루터에 도착하면 셔틀버스를 타고 주경기장으로 가서 해당 일자별 추천 경기를 관람하고, 경기가 끝나면 다시 셔틀버스를 타고 월미도에 가서 월미관광특구를 관광한다.

문의 현대유람선(032-882-5555)







외국 선수들의 아라뱃길 나들이
인천 시티 투어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선수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라뱃길과 인천 유명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인천 시티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인 아라뱃길, 월미공원전망대, 인천도호부청사,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강화평화전망대, 강화역사박물관, 고인돌, 인천대교 등을 방문하는 여정이다. 도심권과 강화권으로 나누어 운영해 인천의 문화 유적과 항만, 경인 아라뱃길을 홍보함으로써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외국 선수들에게 '행복 인천' 이미지를 심어주겠다는 복안이다. 매일 2대를 운영하며, 참가 선수에게는 기념품도 제공한다.

문의 인천시티투어(032-772-4400)

경인 아라뱃길은 요

경인 아라뱃길은 한강과 서해를 안전하면서도 빠른 뱃길로 연결하는 운하다. 1987년 발생한 굴포천 유역의 대홍수 피해에 대한 치수 대책에 운하 기능을 더해 물류, 레저까지 가능한 경인 아라뱃길을 조성한 것이다. 2012년 5월 정식 개통한 경인 아라뱃길은 서울 개화동 한강에서 인천 오류동 서해까지 약 18km의 물길에 수향8경과 파크웨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하고 쾌적한 문화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수향8경이란 물길 주변의 아름답고 특색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인 아라뱃길에는 아라폭포, 수향원, 두리생태공원 등 8개의 경관 거점이 있다. 남측 뱃길을 따라가는 15.6km 길이의 2차선 경관 도로인 파크웨이 주변으로는 봉수마당, 매화동산, 플라잉가든 등 12개의 테마 공간이 들어서 있다.



도심 속에서 즐기는 수상 레포츠의 메카

이렇게 재미있을 水가!

아라김포여객터미널에 있는 아라마리나는 갑문을 조작함으로써 사계절 내내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각종 수상 레포츠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또 아라뱃길을 따라 41.3km의 자전거도로가 조성돼 있어 주말이면 많은 사람이 자전거 라이딩을 즐긴다.

에디터 이정은 **포토그래퍼** 문덕관 **사진 제공** K-water



멋진 크루즈 타고 아라뱃길 속살 체험하기 유람선 투어

아라뱃길 김포여객터미널과 인천여객터미널을 오가는 유람선을 타고 수향8경을 감상하며 바닷물과 강물의 수위를 맞추는 갑문도 체험할 수 있다. 또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여의도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덕적도까지 왕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아이를 위한 운하 체험 학습 코스도 별도로 운항한다.
문의 현대유람선(032-882-5555)

More info

갑문 체험 코스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아라인천여객터미널, 혹은 아라인천여객천터미널에서 연안여객터미널까지 운항하며 월미도 앞바다, 작약도 앞바다, 영종대교를 지나 아라뱃길 서해 갑문을 체험한다. 왕복도 가능.
아라뱃길 코스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서 아라김포여객터미널, 혹은 아라김포여객터미널에서 아라인천여객터미널까지 아라뱃길 주 운수로를 따라 운항하며 수향8경, 아라뱃길 파크웨이를 구경한다. 왕복도 가능.
갑문 체험 + 아라뱃길 코스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아라김포여객터미널, 혹은 아라김포여객터미널에서 연안여객터미널까지 운항하며 갑문 체험과 아라뱃길 구경을 함께 할 수 있다.
갑문 체험 + 불꽃 크루즈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서 연안여객터미널까지 갑문을 체험하고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다시 인천대교, 월미도, 작약도를 돌며 불꽃놀이, 마술 등을 즐기는 코스. 원하면 디너도 가능하다.
덕적도 코스 여의도 유람선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아라뱃길을 따라 서해로 운항한다. 인천대교, 팔미도 앞바다, 무의도 앞바다를 거쳐 덕적도에 도착하며 덕적도에서 4시간가량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여의도로 회항한다.
운하 체험 학습 유람선을 타고 갑문을 체험하며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 들어선 아라타워 전망대에서 아라뱃길과 인천 앞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운하 체험. 아이들 체험 학습으로 인기가 높다.


갑문 체험 코스


아라뱃길 코스


갑문 체험+
불꽃 크루즈


운하 체험 학습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요트 세일링

아라김포여객터미널에 조성된 아라마리나는 갑문을 조작함으로써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요트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안전하게 배울 수 있다. 수상 레저에 필요한 요트 정비소, 주유소, 계류장, 클럽 하우스 등 부대시설을 두루 갖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딩기 요트와 크루즈 요트 등을 즐길수 있다. 또 아라마리나의 요트 스쿨에서는 체험 과정부터 고급 과정까지 단계별 이론과 실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단순한 일일 요트 체험부터 요트 조종 면허 시험에 대비한 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 국가 대표 출신 몸짱 요트 강사의 친절한 강의는 덤. 또 서울 한강부터 아라뱃길을 따라 서해까지 요트를 타고 항해할 수 있어 요트 마니아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문의 아라마리나 요트스쿨(031-999-7893~4)









가족 모두 신나고 짜릿하게
수상 레저 체험 프로그램

아라뱃길에서 요트만 즐기란 법 있나? 아이와 어른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카약, 수상자전거, 범퍼보트 같은 수상 레저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특히 수상자전거와 범퍼보트는 아이에게 인기 짱! 좀 더 수준 높은 카약은 로맨틱한 엄마, 아빠에게 인기 만점이다.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수상 레저 체험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아라김포여객터미널 아라마리나 옆과 아라인천여객터미널 아라빛섬에서 운영하고 있다.



인천의 명소도 구경하고 아라뱃길도 체험하고
아라뱃길 투어 관광 상품

인천의 명소와 아라뱃길 투어를 연계한 뱃길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인천 차이나타운, 달동네박물관, 국립생물자원관, 녹청자 도요지 등을 둘러보고 아라뱃길에서 요트, 뱃놀이, 캠핑, 뱃길 명소 등을 즐기는 여행이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인천 차이나타운, 달동네박물관을 돌아보고 경인 아라뱃길을 투어하는 '인천 근현대사 체험 여행'과 한반도 생물의 다양성, 주요 생태계 등을 엿볼 수 있는 국립생물자원관과 뱃길 투어, 수상 레저 체험을 포함한 '지구를 살리는 여행'을 운영한다. 보물섬 투어도 녹청자박물관과 뱃길 투어를 연계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문의 아라뱃길 종합안내센터(1899-3650)





기분 좋은 가을바람을 즐겨봐~ 자전거도로

경인 아라뱃길의 최대 수혜자는 자전거 라이더들이 아닐까? 경인 아라뱃길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41.3km에 걸쳐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강변을 따라 폭 5~8m의 너비로 만들어 자동차나 보행자와 부딪칠 걱정 없이 시원하게 달릴 수 있다. 이 자전거도로는 공항철도 검암역·계양역과 연결되어 접근성이 좋은 것도 큰 장점. 여기에 자전거 마니아를 설레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국토 종주 노선이 경인 아라뱃길에서 시작한다는 점이다. 경인 아라뱃길 남측 자전거도로는 한강 자전거도로와 만나면서 낙동강 하구까지 633km에 이르는 국토 종주 자전거도로의 출발선이다.

또 아라뱃길에서 자전거를 빌려 한강 자전거도로까지 타고 가 여의도(원효대여소)에서 반납해도 되니 가을바람 좋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아라뱃길 자전거 라이딩에 나서보는 건 어떨까?

More info

633광장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 있는 국토 종주 출발점에는 이를 상징하는 633광장이 들어서 있는데, 출발 표지석에 소설가 김훈이 쓴 "가자 가자 가자! 바퀴는 굴러가고 강산은 다가온다"라는 문구를 새겨놓았다.
판개목 쉼터 한강 자전거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에 조성한 쉼터로 한강의 파노라마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 대여소 5곳을 운영 중이며, 한강 자전거도로와 교차 대여·반납이 가능하다. 아라인천여객터미널(정서진), 시천교 남단, 계양대교 남·북단, 아라김포여객터미널.


633광장


판개목 쉼터


자전거 대여소

흐르는 강물 보며 캠핑 즐기기 두리 캠핑장

수향8경 중 6경에 속하는 두리생태공원은 홍수 조절을 위한 천변 저류지를 활용한 20만㎡의 대규모 생태 공원으로, 한 켠에 캠핑 사이트 55면이 조성돼 있다. 여름이면 아라뱃길은 두리생태공원뿐 아니라 전 구간의 잔디밭이 텐트로 가득 찰 정도로 인기가 높아 최근에는 불법 야영을 계도하느라 진땀을 뺄 정도이다. 캠핑 같은 아웃도어 활동이 유행하면서 아라뱃길은 지역 주민이 부담 없이 찾는 도심 속 휴식처로 자리 잡았다.





흥과 정이 넘쳐나는 문화 예술 축제에 놀러 오세요

아라뱃길에서는 365일 축제가 열린다

아름다운 수변 경관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예술 축제 등이 열리는 경인 아라뱃길이 수도권 제일의 관광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2013년 한 해 경인 아라뱃길을 찾은 방문객은 305만 명, 문화 공연도 190여 회에 달한다. 특히 이번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을 시작으로 가을, 겨울까지 경인 아라뱃길에서는 문화 마당이 풍성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일상에 지쳤거나 색다른 재미를 느끼고 싶은 당신, 문화와 예술의 향기로 가득한 경인 아라뱃길로 당장 떠나자.

에디터 이선민 **포토그래퍼** 문덕관, 강민구, 홍하얀 **사진 제공** K-water

젊은 감각의 조각 작품이 한가득 조각 공원

국민이 문화 예술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아라뱃길 문화 만들기' 사업을 벌인 K-water는 아라뱃길 파크웨이 인근 녹지에 조각 공원을 조성했다. 대학생이 제작한 친근하고 상상력 풍부한 조각 작품 24점을 전시해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작품을 감상하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각양각색 문화 예술이 넘치는 축제의 장 아라문화축제

아라뱃길의 주운수로와 아라마리나, 자전거도로에서 열리는 아라문화축제는 2013년 5월 처음 개최됐다. 축제 기간에는 카누 마라톤 대회, 드래건 보트 대회, 자전거 대회, 요트 대회 등 뱃길 고유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이색 체험 축제가 펼쳐졌다. 더불어 정서진 아라뱃길 마라톤 대회, 바다 그리기 대회, 팝페라 공연, 주민 잔치 등 지역사회가 개최하는 14개의 문화 축제가 함께 열려 9일간 수만 명의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올해는 세월호 사고 여파로 미뤄져 10월 중 열릴 예정이다. 제2회 아라문화축제에서는 드래건 보트 대회는 해양수산부 장관배 대회로 격상되어 1박2일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며 카누 마라톤 대회, 아라 요트 대회, 아웃도어 에듀케이션 행사, 생명 사랑 문화 페스티벌, RC 보트 대회, 자전거 대행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아라뱃길 종합안내센터(1899-3650)

인천 문화 예술인이 뭉쳤다 서곶문화예술제





서곶문화예술제는 인천 서구 문화예술인회 등 지역 문화 예술인이 합동으로 펼치는 본격 문화 예술 축제다. 올해는 9월 12일부터 13일 이틀간 서구문화회관과 아라뱃길 시천가람터에서 열린다. 시천가람터에서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구민 백일장, 서구 학생 예술 대회를 비롯해 퓨전 마당극, 국악과 한국무용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참가자에게는 기념으로 가족사진을 찍어주고, 물레 체험과 핸드 페인팅, 열쇠고리, 천연 염색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했다.

문의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032-560-4342)





한 해의 마지막을 위해
정서진 해넘이 축제

매년 12월 31일에는 마지막 지는 해의 감동을 함께 느끼기 위한 '정서진 해넘이 축제'가 열린다. 정서진은 강원도 정동진과 대칭되는 아라뱃길 서쪽 끝 지점으로, 정서진 노을종 너머로 바라보는 서해의 일몰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인천시 서구에서는 정서진을 지역의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연중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중 매년 12월 31일에 열리는 '정서진 해넘이 축제'는 일몰 카운트, 소원 풍등 띄우기, 불꽃 축제, 음악 공연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한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추억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잊지 못할 추억의 장소로 시민의 호응이 뜨겁다.

자전거 라이더의 천국
자전거 대회

한강 자전거도로와 연결되는 아라뱃길 자전거도로는 부산 낙동강 하굿둑까지 이어지는 633km 국토 종주 코스의 출발 구간이기도 해 자전거 마니아의 필수 코스로 떠오르고 있다. 아라뱃길 자전거도로에서는 매월 크고 작은 자전거 관련 행사가 열린다. 2011년 4월에는 세계적 자전거 경기인 'Tour de Korea'를 개최했고, 작년 6월 '가족 사랑 아라 자전거 대행진', 10월에는 '2013 국제 바이크 캠핑 축제'가 열려 수천 명의 국내외 자전거 동호인이 자전거 라이딩과 더불어 캠핑, 공연 등에 참여했다. 작년 6월에 열린 '코리아 데모라이드 in 아라뱃길' 행사에서는 국내외 유수의 자전거 완성차 업체가 참가하는 신차 전시와 체험 행사가 열리는 등 아라뱃길은 그야말로 자전거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누구에게나 열린 무대
소규모 문화 공연

3월부터 10월까지 주말이면 경인 아라뱃길 곳곳에서 아마추어 동호회 연주회, 봉사단 문화 행사, 지역 문화 기관 정기 공연 등 크고 작은 문화 공연이 펼쳐진다. 검암역 인근의 시천가람터, 귤현프라자, 장기동 인근의 황어장터, 아라김포여객터미널 수변문화광장, 아라인천여객터미널 등은 아마추어 공연과 동호인 색소폰 공연, 작은 음악회 등 상시 음악과 즐거움이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아라뱃길을 찾는 시민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주민 화합의 장이 활짝~
주민 화합 문화제

지난 8월 아라김포여객터미널 일원에서 개최한 제12회 김포예술제에서는 문화 공연과 문화 전시, 체험 행사와 더불어 1박 2일 캠핑 행사도 열려 참여한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아시안게임 기간에는 시천가람터 수변 무대 공연장에서 검암동·경서동 주민 화합 한마당 문화 축제도 진행해 초청 가수 공연, 주민 노래자랑, 어린이예술제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와~ 비행기다
플라잉가든

플라잉가든은 김포공항에 내리는 비행기가 머리 바로 위에서 착륙하는 듯한 이색적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테마 공간이다. 약 8000m² 부지에 풍향 조형물과 들판 독(dock) 등을 갖춰 휴식을 취하기에 좋다. 또 가까이에 아라뱃길의 바람을 주제로 만든 3000개의 바람개비가 예쁘게 돌아가는 바람개비 동산도 자리해 사진작가들의 출사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K-water와 인천시가 함께하는
건강 대회

11월초 아라뱃길에서는 K-water 가족과 인천시 가족이 참가한 건강 달리기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평소 아라뱃길이 궁금했다면 이 기회에 가족과 함께 아라뱃길로 나들이 하는 것도 좋을 듯.







서해 일몰이 백미
아라타워

수향2경에 위치한 아라인천여객터미널 아라타워 76m 높이의 전망대에서는 아라인천여객터미널과 서해, 청라지구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서해의 일몰과 야경은 아라뱃길의 백미로 꼽힌다. 아라리움문화관의 갑문 운하 체험, 선박 운항 시뮬레이션 등을 체험하며 자녀와 함께 실제 갑문의 원리를 교육할 수 있는 산 교육장이기도 하다. 또 아라타워 앞에서는 매 주말 인천시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품질 좋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이바지하고 있다.





도심 속 최고의 청정 지대
아라폭포 & 아라마루

수향8경 중 4경에 속하는 아라계곡에는 과거 계양산 자락이 지나던 곳으로 아라뱃길의 가장 높은 협곡을 이용해 인공적으로 만든 아라폭포와 뱃길을 조망할 수 있는 원형 전망대 아라마루가 있다. 아라폭포는 높이 45m, 너비 150m인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 폭포로, 폭포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청량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한여름 밤이면 조명이 어우러지면서 장관을 연출한다. 아라마루는 지름 46m, 높이 45m의 원형 전망대로 바닥 일부 구간에 투명 강화유리를 깔았다. 아라마루는 미국 그랜드캐니언 스카이워크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스릴감이 그만이다.



남녀노소 공짜로 영화를 즐긴다
가족영화 상영

인천터미널 문화관 3D 영상관에서 무료 영화감상 기회를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 매주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이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나 가족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아라뱃길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어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물길, 화폭에 흐르다

섬진강 화가 **송만규**

20년 넘게 섬진강을 찾아다니며 화폭에 물줄기가 흐르게 하는 섬진강 화가 송만규. 우리가 미처 모르는 섬진강을 그는 속속들이 보여준다. 물길이 막히지 않고 강물이 마르지 않는 이상 계속 섬진강을 그릴 것이라는 그는 이미 섬진강 자체였다.

에디터 양인실 **포토그래퍼** 문덕관





1

인간 속에서, 도시 속에서 그는 부대끼고 고민하고 상처받으며 지쳐갔다. 지친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그가 향한 곳은 강이었다. 그냥 무작정 걸었다. 걷다가 지치면 아무 데나 앉아 무심히 강을 바라봤다. 걸을수록 마음이 차분해지고 바라볼수록 본래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강에서 무한한 자유로움을 봤으며 더 넓은 세상의 사고를 깨달았다.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줄기는 그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일깨워줬다. 자연이 준 선물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까지 절로 얻었다. 스스로 등지고자 한 인간관계라는 장벽을 눈 녹듯 스스럼없이 허물어뜨린 자연이, 강이 위대하게 느껴진 것은 당연했다. 그에게 섬진강은 그런 존재였다. 누구나 자신만의 달란트로 최상의 가치를 구현하고 싶은 법이다. 동양화가 송만규가 섬진강 화가가 된 연유가 바로 그러하다.

1 2002년부터 머물고 있는 순창 작업실.
2 '아침 고요 3', 73×103cm, 수묵 채색, 2008.
3 '매 발톱', 41×53cm, 수묵 채색, 2011.
4 '아침 고요 12', 75×144cm, 수묵 채색, 2008.
5 '아침 고요 13', 75×144cm, 수묵 채색, 2008.



2

그는 이미 섬진강이다

1992년 처음 섬진강을 찾아 머물던 임실, 2002년부터 정착한 순창, 시시때때로 다니는 구례와 하동은 모두 섬진강이 흐르는 땅이다. '섬진강 화가' 송만규는 '섬진강 작가' 김용택과 임실 지척에서 살기도 했다. 섬진강이 흐르는 땅에서 동양화가 송만규는 한지에 수묵으로 섬진강을 그려나갔다.

그런데 왜 굳이 섬진강이었을까?

"우리나라 큰 강을 다 둘러봤지만 섬진강은 한마디로 다듬어지지 않은 강이었어요. 잘 다듬어 강폭도 넓고 깊이도 깊은 강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곧게 다듬은 직선 대신 두루뭉술한 곡선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곳, 유속이 느


3

려 오히려 안정감이 드는 곳이 바로 섬진강이었죠."
20년 넘게 섬진강에서 살았지만 아직도 보지 못한 섬진강이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같은 강이라도 늘 다른 표정의 섬진강을 본다고 말한다. 섬진강 상류에는 바위나 돌, 풀과 나무 등이 많아 소재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근경 중심이었다면 강폭이 넓은 하류엔 모래가 많아 물길을 표현하는 원경 중심의 그림을 그렸다. 또 아침저녁으로, 사계절 어제오늘이 다른 섬진강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늘 그에게 색다른 영감을 준다.

누구도 모를 섬진강을 탐하다

분초를 달리하며 보여주는 섬진강 중에서도 그는 유독 새벽 강을 좋아했다.
"새벽 섬진강은 햇빛에 빼앗기지 않은 근원의 힘, 햇빛에 반사되지 않은 고유한 색감을 품고 있어요. 마치 태초의 섬진강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장담할 정도로 원초적 생동감을 느끼죠. 새벽 서너 시경, 섬진강을 따라 걷다 보면 안개가 온몸을 휘감고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강을 보기 위해 높은 산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홀로 가는 새벽 산행은 소름 끼치도록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아련히 밝아오는 섬진강 물줄기를 찾아내지요. 여명과 더불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안개, 햇빛 속에서 사라지는 강물 빛은 자연의 변화무쌍한 움직임입니다."
유유자적 흐르는 강물, 정상에서 보는 운해, 강과 산에서 끝없이 솟아오르는 기운, 감당할 수 없는 힘, 적막한 풍경 뒤에 숨은 함성, 그에 속해 있는 자신의 존재감과 자세…. 송만규 화가의 새벽 강을 보고 어떤 이는 노자가 놀다 간 곳이라 했고, 또 어떤 이는 고요하고 맑고자 하는 작가의 내면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위선을 모르는 물의 진실함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섬진강을 걷고 사색하던 송만규 화가는 불현듯 이 강을 전부 담고 싶다는 욕심이 자연스레 고개를 들었다고 한다. 가없이 펼쳐진 이 강을 전부 담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혀 21m의 여름 섬진강을, 24m의 겨울 섬진강을 그렸다. 가장 규모가 큰 갤러리에서도 전부 펼치지 못할 만큼 기다란 강이었다. 그는 그 강을 재현하고 싶다고 했다. 내년에 선보일 '섬진팔경'에 다시 도전할지도 모른다며 강물 같은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는 '한(韓) 스타일'의 일환으로 한국의 전통 기법인 수묵 기법과 가장 아름다운 자연 섬진강의 조화를 해외에 선보이고 싶다고도 했다.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을 때는 지구의 반만 본 심정이었다면, 자연을 통해서는 지구의 나머지까지 전부 얻은 셈이죠. 섬진강이 제게 준 크나큰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았으니 온 마음을 담아 보답해야죠."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의 말이다. 자신이 가진 만큼 넓히고 자신의 속도만큼 흘러도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품고 보여주는 물은 만물의 근원인 동시에 인간이 배워야 할 첫 번째 속성이 아니겠느냐고 송만규 화가는 말한다. 지금 이 시간, 그의 발걸음은 또다시 어느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흐르고 있지 않을까. W


4


5



북한강변에서 만나는 작은 유럽

쁘띠 프랑스와 제이드 가든



영화나 드라마에 멋진 곳이 나오면 '저기가 어디지?' 궁금해진다.
당장 포털 사이트에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준다. 나보다 발 빠른 사람은 어디든 있게 마련이니까.
부지런한 블로거와 네티즌 덕분에 그곳은 이내 사람이 북적이는 유명 여행지가 된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가보면 허걱! 카메라'발'과 'CG'에 낚였다는 걸 깨닫고 실망 실망! 하지만 모든 촬영지가 다 그런 건 아니다.
CG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곳도 많다. 북한강변에 자리 잡은 쁘띠 프랑스와 제이드 가든이 그런 곳이다.

에디터 이정은 **포토그래퍼** 문덕관











1 골동품 전시관에는 접시, 생활 소품 등 오래된 골동품이 전시돼 있다.
2 벽과 골목 곳곳에 다양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3, 4 〈어린 왕자〉를 콘셉트로 조성해 〈어린 왕자〉와 관련한 예술품이 자리한다.
5 매일 다양한 공연이 열려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예쁜 프랑스 마을 쁘띠 프랑스

'똥·덩·어·리!'라는 최고의 유행어를 만들어낸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곳이 청평호반에 있는 쁘띠 프랑스가 아닐까 싶다. 주인공 강마에 사무실과 배경의 주무대로 늘 화면을 가득 채운 파스텔 톤의 유럽식 건물과 공간이 주인공 강마에 만큼이나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쁘띠 프랑스는 드라마 방송 후 폭풍 검색의 주인공으로 등극했으며, 유명 여행지가 됐다. 그 후 잠시 뜸하다가 드라마 〈시크릿가든〉과 〈별에서 온 그대〉,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촬영으로 다시 한 번 주목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과 일본인 관광객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국제적(?) 관광지가 됐다. 쁘띠 프랑스에서는 드라마의 향수에 젖고 싶은 관광객을 위해 촬영 세트를 그대로 보존하거나 다양한 소품으로 포토 스폿을 만들어 놓았다. 주인공이 앉은 의자에 앉아보고, 촬영 당시 입은 옷을 입고 사진도 찍고, 입간판과 다정히 포즈도 취하고…. 다소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뭐 어떤가. 민망함은 잠시지만 추억은 오래가는 법.

쁘띠 프랑스는 프랑스의 오래된 작은 마을을 모티브로 만든 프랑스 테마파크다. 낭만적 프랑스 문화를 우리나라에서도 만끽할 수 있도록 한 것. 전체 콘셉트는 〈어린 왕자〉 분위기. 알록달록한 동화 마을 느낌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매표소에 들어서면 원형으로 꾸민 야외극장이 나오고 좌우에 아름다운 프랑스풍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데, 각 건물마다 다양한 아이템으로 구성했다. 그중 생텍쥐페리의 사진과 일생, 작품 세계, 친필 원고와 〈어린 왕자〉 삽화를 전시한 생텍쥐페리 기념관은 대표적 공간. 프랑스의 3대 벼룩시장인 생투앙 벼룩시장을 모티브로 만든 골동품 전시관에서는 접시와 생활 소품 등 오래된 골동품을 구경할 수 있고, 유럽 인형의 집에서는 정통 프랑스 인형, 독일의 도자기 인형, 체코의 마리오네트 등 300여 점에 달하는 유럽의 빈티지 인형과 소품을 볼 수 있다. 인형이라고는 하나 사실적으로 만들고 낡은 탓에 예쁘다는 느낌은 덜하다. 바비 인형이나 콩순이 인형을 좋아하는 여자아이라면 무서워할 수도. 이 밖에도 프랑스 전통 주택 전시관에서는 현지인의 생활을 엿볼 수 있고, 오르골

Petite France











1 키친 가든에는 제이드 가든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식용식물을 키우고 있다.
2, 3 산책길 곳곳에 구름다리, 조각상, 분수 등이 있어 더욱 아름답다.
4 봄부터 가을까지 다양한 꽃이 피어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5 대형 토피어리가 인상적. 기념사진 찍기 좋은 포토 스폿이다.

아름다운 유럽 정원 제이드 가든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 주인공 송혜교 집으로 등장한 이탈리아 토스카나풍의 이국적 건물에 시청자들 눈을 사로 잡았다. 겨울에 촬영해 붉은 벽돌의 건물만 눈에 띄었는데 실제로 이곳은 숲이 아름다운 수목원이다.

한화에서 운영하는 제이드 가든은 숲 속에서 만나는 작은 유럽이라는 콘셉트로 조성되었다. 원뿔 모양의 나무가 나란히 서 있고,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우는 다년생 초화가 자라는 영국식 보더 가든, 가든과 수로를 중심으로 잔디밭이나 화단을 꾸민 이탈리안 가든, 국내외 만병초를 수집해 키우는 로도덴드론 가든 등 24개의 정원이 수목원 곳곳의 토스카나풍 건물과 어우러져 이국적 풍경을 연출한다.

드라마에 나온 집은 입구에 있는 레스토랑과 기념품 숍. 건물을 지나면 보더 가든, 이탈리안 가든을 시작으로 정원 산책길이 시작된다. 제이드 가든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식용식물을 키우는 키친 가든에는 호박과 각종 허브가 자라고, 고산 온실에는 알프스·히말라야·백두산 등 고산 지역에서 수집한 고산식물이 푸르름을 자랑한다. 다양한 꽃과 잎이 사계절에 걸쳐 색깔이 변하면서 큰 물결 모양을 이루는 꽃물결원, 건조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 숨 쉬는 드라이 가든 등을 지나면 정원이라기보다 숲에 가까운 로도덴드론 가든, 이끼원, 윈터 가든, 야생화 언덕 등이 나온다.

제이드 가든은 입구에서 제일 멀리 있는 전망 쉼터까지 세 가지 코스로 산책할 수 있는데 나무내음길, 단풍나무길, 숲속바람길이다. 나무내음길은 낙엽송 우드 칩이 두껍게 깔려 있어 걸을 때마다 향긋한 나무 냄새가 솔솔 올라온다. 각 정원을 더욱 가까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으며, 편도 40분 정도 소요된다. 단풍나무길은 다양한 단풍나무가 자라고 있어 가을에 더욱 운치가 있다. 수목원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조용히 산책할 수 있는 코스로 편도 50분 소요. 숲속바람길은 큰 나무 그늘이 항상 드리워진 길로 깊은 숲 속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바닥이 포장길이라 유모차나 휠체어도 가능하다. 편도 60분 소요. 어느 곳을 선택하든 교차하는 지역이 있어서 완전히 동떨어진 느낌 없이 걷다가 다른 길로 옮겨갈 수 있다. 제이드 가든은







TIP

여기도 가보자

남이섬 가평의 대표 여행지.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졌지만 지금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환경 운동의 대명사가 됐다. 자연과 어우러진 예술과 문화를 만날 수 있다. 최근 나미나라공화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소양호 소양강댐 준공으로 형성된 소양호는 1970~1980년대 수도권의 대표 관광지였다. 청평사에 가려면 지금도 소양호에서 배를 타고 건너야 한다. 소양강댐 정상에서는 주말이면 작은 콘서트가 열린다.

하우스에서는 유럽에서 수집한 진귀한 오르골과 유럽 귀족이 사랑하던 오르골 멜로디를 들을 수 있다. 직접 오르골 시연도 한다.

마임과 마술의 만남인 매직 퍼포먼스, 1800년대부터 시작한 프랑스 전통 손 인형극인 기뇰, 체코의 전통 인형 마리오네트로 펼치는 거리 인형극, 뮤직 콘서트인 거리의 악사 등을 야외극장과 인형극장, 거리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쁘띠 프랑스는 건물은 물론 계단이나 골목 곳곳에도 어린 왕자 그림과 의자, 조각상 등을 설치해놓아 어느 각도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도 멋진 그림이 된다. 또 넓지 않은 공간에 볼거리가 오밀조밀 모여 있어 어린아이를 데리고 구경하기에도 제격이다. 주말에는 다소 번잡할 수 있다. 하지만 소박하고 예스러운 프랑스의 전통문화에 취해보고 싶거나, 드라마 폐인이라거나,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쁘띠 프랑스를 적극 추천한다.

1 건물 벽과 담에 〈어린 왕자〉 그림이 그려져 있어 사진 찍기 안성맞춤이다.
2 드라마 주인공들의 입간판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 만점.
3 넓지 않은 공간에 볼거리를 오밀조밀하게 조성해 아이와 나들이하기 좋다.



Petite France





야트막한 계곡과 언덕을 해치지 않고 조성해 길이 구불구불 자연친화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흙먼지 폴폴 나는 거친 흙길만 있는 건 아니다. 아기들이 아장아장 걸을 수 있는 폭신폭신한 예쁜 길도 있고, 나무 덱을 깔아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도 있다.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한 세심한 배려에 대접받는 기분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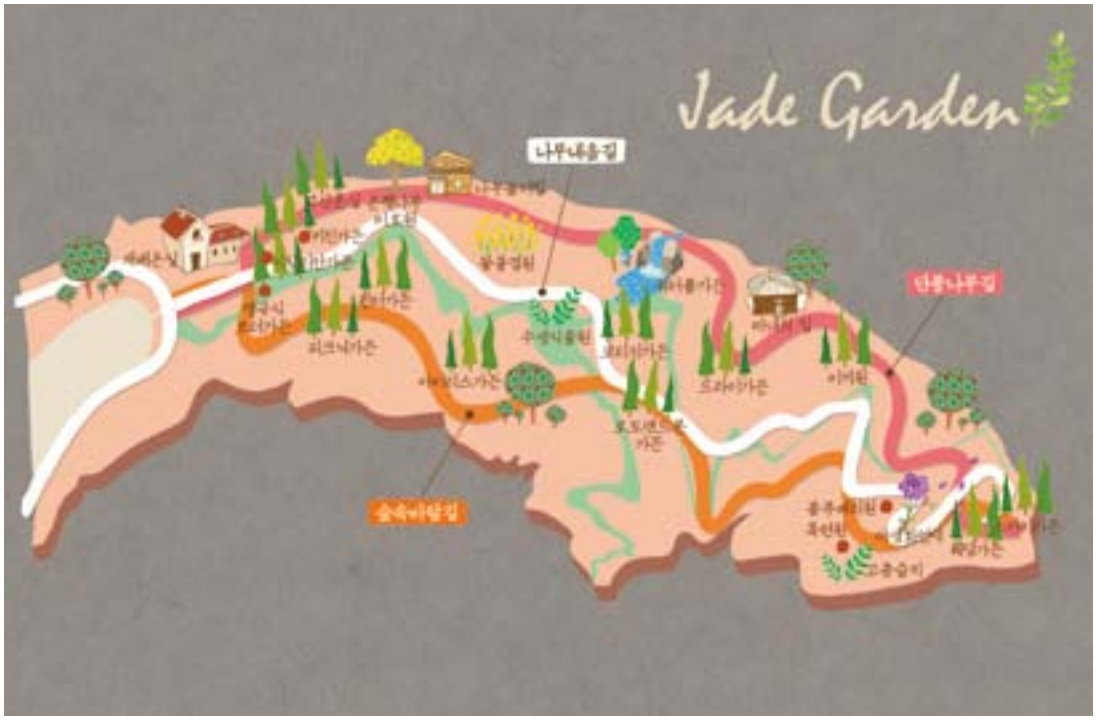
제이드 가든은 일반 수목원과 다르다. 원시림을 그대로 살린 자연 그대로의 수목원도 아니고, 인공적으로 조경한 티가 역력히 나는 화려한 정원도 아니다. 자연을 가까이서, 그리고 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숲 속 정원이라면 맞을까? 그리고 키 큰 나무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토스카나풍 건물 풍경에서 〈신데렐라〉나 〈백설공주〉의 배경인 유럽의 숲 속이 연상되기도 한다. 제이드 가든의 모든 코스를 둘러보는 데 2시간 정도 걸린다. 편한 차림으로 최대한 느리게 걸으며 자연을 만끽해보자. 제이드 가든에서는 반나절 이상 머물러도 전혀 지루하지 않다.

여기도 가보자

TIP

춘천막국수와 닭갈비 가평과 춘천의 대표 음식은 뭐니 뭐니 해도 춘천막국수와 닭갈비. 춘천막국수는 비빔장을 넣어 먹는 비빔막국수다. 맛집으로 금강막국수, 샘밭막국수, 유포리막국수, 명가막국수가 유명하다. 닭갈비는 춘천시 후평동에 닭갈비 골목이 있는데, 그중 우성닭갈비와 1.5닭갈비가 제일 유명하다.

아침고요수목원 축령산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국의 미를 듬뿍 담은 정원을 원예학적으로 조화시켜 설계한 원예 수목원이다. 울창한 잣나무 숲에서 즐기는 산림욕이 일품이다.



1, 2 입구의 토스카나풍 건물과 영국식 보더 가든, 이탈리안 가든이 어우러져 이국적 풍광을 연출한다.



빙하가 침식되어 생긴 골짜기, 피오르 *fjord*



피오르는 '내륙 깊이 들어온 만'이란 뜻의 노르웨이어로, 빙하가 침식되어 생긴 U자 골짜기에 바닷물이 유입되어 형성된 좁고 기다란 만을 일컫는다. 노르웨이의 남서 해안선이 복잡한 까닭은 약 200만 년 전부터 이렇게 수차례 빙하로 뒤덮이며 침식되어 형성된 피오르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피오르는 노르웨이의 송네피오르로 길이가 204km가량이며, 캐나다의 북극해 연안에도 피오르가 셀 수 없이 많다. 그린란드나 스피츠베르겐 섬 등의 피오르에는 깊숙한 만 안쪽에서 지금도 빙하가 밀려 나온다. 에디터 이정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수돗물 캠페인

“몸에 좋은 건강한 수돗물, 마음 놓고 마셔요!”

**우리나라 수돗물이 최근 세계물맛대회에서 세계 7위를 차지하며 맛과 질을 증명했다.
그러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음용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K-water는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스마트 워터 시티 시범 사업 지구인 파주시 교하지구의 한 아파트 광장에서 열린 건강한 수돗물 캠페인 현장에 다녀왔다.**

에디터 이선민 **포토그래퍼** 홍하얀







지난 8월 25일 파주시 교하지구 대원효성아파트 커뮤니티광장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수돗물 캠페인'이 열렸다.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없애고, 건강한 수돗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K-water가 마련한 것이다.

막연히 수돗물을 불신하는 시민을 위해 미리 신청한 각 가정의 수도꼭지 수질 검사도 실시,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수도꼭지를 통해 각 가정에 공급될 때까지 품질이 유지됨을 확인해주었다. 수질 검사를 신청한 아파트 주민 백수진 씨는 "그동안 수돗물은 막연히 안 좋다는 생각에 생수를 사서 마시거나 끓여 마셨다"며 "수질 검사 결과 그냥 마셔도 된다면 나부터 마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수질 검사를 받았다는 박성일 씨는 "수질 검사 결과 마셔도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부터는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면서 "이웃 주민에게도 수질 검사를 받은 후 마셔보라고 권한다"고 했다.

K-water는 이번 캠페인에서 수돗물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한 뒤 수돗물 맛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수돗물과 유명 생수 2종의 맛을 비교하는 블라인드 테스트 '맛있는 물을 찾아라'를 실시했다. 100여 명이 테스트에 참여한 결과 45명이 수돗물을 가장 맛있는 물로 꼽았다.

이와 함께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 옥내 배관 내부를 시민에게 직접 보여주며 문제가 있는 옥내 배관은 배관 청소를 직접 시연하고, 모니터로 아파트 저수조 청소 상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최계운 K-water 사장은 "건강한 수돗물 캠페인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해소하는 동시에 수돗물 사용을 늘리면 먹는 물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ICT 기술 접목한 스마트 워터 시티 건설로 수돗물 걱정 뚝

이날 행사가 열린 아파트 단지는 최근 K-water가 파주시와 MOU를 맺고 스마트 워터 시티 시범 사업 지구로 선정한 곳이다. 스마트 워터 시티 사업이란 K-water가 취수에서 공급까지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관리해 아파트·학교 등의 수도 시설을 개선하고, 실시간 수질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수질 진단부터 문제 해결까지 전담하는 토털 케어 서비스를 말한다. 아파트가 많은 교하지구 외에도 단독주택이 많은 적성지구에서도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연말까지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동안 K-water는 생산부터 공급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점차 전국 18개 위탁 정수장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K-water의 우수한 수도 시설과 기술력이 집약된 스마트 워터 시티 시범 사업으로 시민이 건강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

1 최계운 K-water 사장이 캠페인 참여자들과 함께 직접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
2 현장에서 무료 수질 검사 신청을 받았다.
3 수돗물 맛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가장 높은 표를 얻은 것은 수돗물이었다.
4, 5, 6 행사 중 방문한 가정의 수도꼭지 수질 검사를 실시해 정수장 수돗물과 같은 품질임을 확인했다.









마른장마에 이어 철 없는 장마까지

가뭄에 대비하는 K-water의 유비무환 비책

봄 가뭄에 마른장마까지 이어지면서 국토 대부분이 물 부족에 허덕였다. 때늦은 장마는 일부 지역에만 물 폭탄을 뿌려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특히 내년 홍수기까지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 가뭄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에디터 이정은 **자료 제공** K-water

"6월 장마는 쌀 창고, 7월 장마는 죽 창고"라는 말이 있다. 음력 6월에 끝나는 장마는 벼농사에 이롭지만, 벼 이삭이 필 무렵에 들어 음력 7월에 끝나는 장마는 해롭다는 뜻이다. 때늦은 여름 장마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장마철에는 비가 내리지 않거나 아주 적어 농부의 애를 태웠다. 특히 중부 내륙 지방은 평년의 반에도 못 미치는 강우량을 기록해 일부 지역에서는 기우제까지 올렸다고 한다.

금년 봄 가뭄에 이어 여름 마른장마로 다목적댐에 물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 상태. 일부 댐의 경우 작년 홍수기 이후부터 50년 만의 가뭄이라 할 만큼 매우 적은 양의 물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늦장마가 시작되면서 태풍 '나크리'와 '할롱'이 비를 뿌렸지만, 주로 해안 지역과 제주도에 물 폭탄을 쏟아부어 물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7월 말 전국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35.9%로 평년의 68% 수준이다.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상황이어서 내년 봄까지 물을 공급할 여유가 없다. 특히 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 보령댐은 역대 최저 저수율을 보이고 있다.

노력 하나,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4단계로 나눠 공급

중부 지역의 가뭄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K-water는 홍수기 전까지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댐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용수 공급 조정 순위를 4단계로 나눠 각 단계에 맞게 대응하는 것. 현재는 관심 단계로 실수요량만 공급하지만, 최악의 가뭄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농업용수와 생공용수까지 추가로 감량해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노력 둘, 물차와 병물 지원해 주민 불편 해소

또 가뭄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모로 지원하고 있다. 다목적댐 용수 공급이 어려운 강원도와 경북, 전남의 지류나 산간 지역의 2200가구 4595명은 제한 급수와 운반 급수 등으로 불편을 크게 겪고 있다. 이에 K-water는 춘천·화천·거제에 물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화천·춘천·원주·완도·신안·의성 등에 병물 10만 병을 지원했다. K-water는 15톤짜리 물차 21대를 보유하고, 하루 12만 병의 병물을 생산할 수 있어 가뭄이 계속되더라도 식수는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필요 시에는 광역-지방 상수도 간 비상 연계 관로 31개를 활용해 하루에 153만1000m^3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하수 관측정(지하수 수위를 관측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374개를 활용하면 하루 2만m^3까지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노력 셋, 이토 밸브로 농업용수 공급

지자체 요청이 있으면 광역 상수도 이토 밸브(광역 상수도 수도관 내의 물을 강제로 배수할 수 있는 밸브)를 활용해 농업용수를 비상 공급할 계획이다. 가뭄으로 농사에 차질이 생기면 이토 밸브를 통해 댐 물을 방류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데, 2012년에도 광역 이토 밸브 21개소를 활용해 농업용수 7만3000m^3를 비상 공급 가뭄 지역에 지원했다.



1


2


3

1 K-water의 급수 차량 지원과 병물 지원 현황
2 K-water는 하루에 12만 병의 병물을 생산하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
3 21대의 급수 차량을 보유해 비상시 원활하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노력 넷, 다양한 물그릇 확보해 근본 대책 마련

근본적 가뭄 해결 방안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소규모 댐을 건설해 물그릇을 확보하고 해수 담수화, 지하수 댐, 빗물 활용 등 다양한 대체 수원을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전사적 역량을 가뭄 피해 예방에 집중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가뭄 대책반을 운영해왔다. W

K-water 지역 상생 프로그램 가족 캠핑 '아빠 여기 가!'

농촌은 살아나고 도시민은 즐겁고!

용담댐 주변 지역인 전북 진안군에서 가족 캠핑이 열렸다.
진안군 마을 축제와 연계해 열린 가족 캠핑은 K-water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도시 사람에게는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진안군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도 살리고 도시민과 농촌의 즐거운 상생의 모습을 보여준 K-water 가족 캠핑 현장을 찾았다.

에디터 이선민 **포토그래퍼** 홍하얀



8월 초, 뒤늦은 장마인지 아침부터 강한 바람과 간간이 떨어지는 빗방울을 뚫고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에 위치한 (주)공정여행 풍덩으로 차량이 연달아 들어섰다. 휴가철을 맞아 K-water가 주최한 가족 캠핑 '아빠 여기 가!'에 참여하는 가족들이었다. 캠핑에 참여한 가족은 폐교를 개조해 공간을 아늑하게 꾸민 풍덩 운동장에 텐트를 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여름휴가를 어디로 갈까 고민하던 차에 K-water에서 가족 캠핑을 개최한다고 해서 얼른 지원했어요. 특히 가족당 참가비 1만 원만 내라고 하니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온 박종수 씨는 자녀들과 함께 텐트를 치며 실수를 연발했지만 처음 해보는 캠핑이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도착한 순서대로 자신이 원하는 구역에 텐트를 치던 다른 가족들 역시 강한 바람에 텐트가 자꾸 날아가려는 것을 막으려 고군분투했지만 표정만은 즐거워 보였다.

1박 2일로 진행된 캠핑에 참여한 가족들은 진안군 동향 한여름 수박 축제에 참여하고, 진안 재래시장에

1




2


3


4


5

1 가족 캠핑에 참가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 촬영을 했다.
2 온 가족이 힘을 합해 텐트 치기에 도전.
3 10:1의 경쟁률을 뚫고 가족 캠핑에 참가한 가족들은 스스로를 행운아라고 평했다.
4 수박 축제 현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
5 재래시장에서 저녁 식사 재료를 사는 가족. 오랜만의 재래시장 나들이가 즐겁기만 하다.
6 '아빠 여기 가!' 가족 캠핑 장소인 (주)공정여행 풍덩 전경.

서 K-water가 지급한 재래시장 상품권을 이용해 장을 보는 등 진안 지역의 문화를 접하고 지역 생산물을 소비했다.

참가자들은 "지역의 문화와 생산물을 소비하는 방식은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라며 "다른 곳으로 여행 갈 때도 그 지역의 문화를 즐기는 여행을 해야겠다"고 입을 모았다.

공정 여행 콘셉트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아빠 여기 가!' 가족 캠핑은 로컬 푸드를 먹거리로 이용하고, 마을 공동체를 존중하며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체험하는 공정 여행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진안의 수박 축제는 농촌을 살리겠다는 이 지역 주민의 자생적 축제입니다. 젊은 사람은 농촌을 떠나고 용담댐 건설로 진안의 인구가 줄어드는 등 어려움이 큰 진안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취지에서 캠핑을 진행했습니다."

K-water의 고중석 홍보실장은 4인 가족 기준 20가구 모집에 200가구 넘게 지원할 정도로 큰 관심을 끈 만큼 앞으로도 도농 간 교류 활성화 사업을 다양하게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water는 최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단순 기부가 아닌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화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사업을 직접 운영하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댐 가치를 극대화해 댐 주변이 관광 명소로 변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사업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이 자생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성과가 기대된다. W


6

K-water와 함께한 공정 여행, 아름다운 상생이죠

박종석(공정여행 풍덩 대표)



(주)공정여행 풍덩은 국내에 유일한 농촌 공정 여행 여행사다. 농촌 지역을 기반으로 그곳에 사는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참여해 여행 전 과정을 이끌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다.

"공정 여행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마을 주민과 소통하며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밥상을 차리는 등 여행을 통한 수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도농 교류 여행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공정 여행을 K-water와 함께 하면서 더 큰 울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풍덩의 박종석 대표는 "K-water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지역 발전에 초점을 맞춰 변화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앞으로 K-water와 도농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 상생, 열정과 패기’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다

임진강건설단

한탄강홍수조절댐 완공을 앞두고 불철주야 바쁜 나날을 보내는 임진강건설단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면서 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명품 댐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역 상생과 생태 환경을 주도하고 젊고 패기 넘치는 조직 문화로 혁신을 이끄는 건설단을 찾았다.

에디터 양인실 **포토그래퍼** 홍하얀



김용환 차장, 백장열 차장, 도기봉 차장, 김은비 사원
양비오 대리, 양경준 대리, 이두희 대리

휴전선 32km와 인접한 경기도의 최북단 연천. 그 최전방에 자리한 임진강건설단을 찾아가는 여정은 녹록지 않았다. 그러나 굳이 '매의 눈'으로 살피지 않아도 임진강건설단을 찾는 일은 의외로 쉬울 수 있다. 길이 690m, 높이 83.5m, 총저수량 2억7000만m^3로 잠실종합운동장 125개 넓이에 물을 가득 담은 것과 비슷한 규모의 거대한 한탄강홍수조절댐은 제아무리 산야로 뒤덮인 지역이라도 금방 찾을 수 있으며, 임진강건설단은 바로 그 옆에 굳건히 자리하기 때문이다. 어마어마한 위용을 드러내는 한탄강홍수조절댐은 연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 지 오래다. 임진강건설단은 1996년, 1998년, 1999년 3년간 임진강 유역을 강타한 대홍수에 대한 근본 수해 방지 대책으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탄강홍수조절댐을 건설 중이다. 현재 전체 공정률의 76%를 진행했고 2014년 말까지 댐 축조를 마칠 예정이다.

한탄강홍수조절댐은 평상시 물을 담지 않는 홍수 조절 전용 댐으로, 평소에는 자연 방류를 실시해 일반 하천과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임진강건설단의 형제 댐 격인 군남홍수조절지와 함께 정해진 홍수량을 분담해 홍수로 댐 상류 수위가 상승할 경우 효과적으로 조절해 방류할 수 있다. 경기 북부 지역에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홍수 피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은 물론, 생태 자연 지킴이 역할도 톡톡히 할 예정이다. 임진강건설단은 댐 하류에는 친환경 공원을 조성하고, 댐 상류에는 자연 생태 공원을 조성해 생태학습 캠핑장 같은 시설을 통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미 2012년에 임진강 변 두루미 관찰 덱을 설치하는 등 자연환경을 살리는 데 적극 동참하고 있다.

임진강건설단의 최대 이슈인 한탄강홍수조절댐을 빨리 완공하기 위해 직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뭉쳐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임진강건설단이 관리하는 지역의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되는 만큼 제약이 많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건설단은 올해 'Smart 임진강, Smile 2014'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조직 문화 혁신에 나섰다. 생일 축하 자리를 마련하고 아침 인사를 하는 등 작은 일부터 서로 나누고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나간다. 또 인접한 군부대와 MOU를 체결하고 사회복지 단체와 연계한 봉사 활동 등으로 지역 소속감을 높이는 데 앞장선다. 이는 직원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결실을 맺었다.

"임진강건설단은 젊은 직원이 대거 포진한 대표적 건설단입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 이미지에서 탈피해 '근무하고 싶은 건설단, 패기 넘치는 건설단'을 만들기 위해 열려 있는 소통과 자율적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라고 김한중 단장은 강조했다.

한탄강홍수조절댐 완공, 지역 주민 상생, 생태 환경 주도, 열정과 패기 넘치는 조직 문화 형성…. 임진강건설단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W

우리 건설단 슈퍼맨!



한탄강댐 지역 보상 100% 달성을 위하여!

보상팀 **박기종** 차장

임진강건설단은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에 대한 보상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 이를 진두지휘하기 위해 보상팀 박기종 차장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3년 전부터 수몰 지역 주민 이전과 관련한 대책에 나서 큰 결실을 맺었다. 잦은 민원이 거짓말처럼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이 친근감을 갖고 먼저 다가오고 있다.

"보상은 까다롭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럴수록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 자세와 오픈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워터 투어에 동행하고 보상 문제에서 최대한 제공이라는 기준으로 실질적 도움을 주는 등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같은 노련함은 최대 현안인 철갑상어 양식장 보상 및 이전 문제에서도 빛을 발했다.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철갑상어 양식업에 대하여 보상용역성과의 문제점(법규적, 실체적 측면)을 본사, 환경부, 국토부 등 행정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 규명하여 적정 보상을 기하여 공익사업의 대규모 보상투기 확산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현재 보상청구기각 재결 취소 소송에 대하여 경찰 수사를 통한 불법행위 규명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댐 담수의 최대 걸림돌인 철갑상어 양식장(3개소 23천㎡) 선제적 처리를 위하여 이전 협의와 병행하여 토지인도 및 명도단행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공정계획과 연계한 보상업무의 선제적 대응으로 한탄강댐 적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하고 있다. 21년째 보상 전문가로 활약하면서 쌓은 합리적이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은 그만의 강점이다.



K-water 태백권관리단의 안동하회마을 향토 문화 체험

"한국의 옛날 모습이 참 멋졌어요"

K-water 태백권관리단은 이주민 여성 가족 30여 명을 대상으로 안동하회마을 향토 문화 체험을 실시했다. 지역 내 이주민 여성이 한국 역사와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다문화 가족 간 원활한 소통과 화목한 가정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주민 여성들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에디터 이정은 **포토그래퍼** 문덕관















1 한국에 온 지 7~8년 됐지만 대부분의 이주민 여성은 하회마을을 처음 찾았단다.
2 각자 만든 탈을 들고 좋아하는 아이들.
3 필리핀에서 시집온 오프레 씨와 아들 성진이.
4, 5 탈춤 공연을 보고 탈 만들기 체험을 했다.
6 조선 시대 주거 형태와 생활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안동하회마을.

"한국에 온 지 8년 됐는데, 안동하회마을은 처음 와봤어요. 기와집이랑 초가집이 정말 멋지네요!"

8년 전 필리핀에서 시집온 조안티 오프레 씨는 하회마을의 멋진 풍경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조안티 오프레 씨뿐 아니라 태백권관리단 초청으로 안동하회마을 향토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주민 여성 모두 흥미로운 듯 하회마을 구석구석을 살폈다.

K-water 태백권관리단은 지난 8월 13일, 이주민 여성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태백다문화센터의 협조를 얻어 '다문화 가족 한국 전통문화 체험'을 개최했다. 장소는 한국 전통 유교 문화 본산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하회마을. 이 행사에는 이주민 여성들과 방학을 맞은 아이들, 시부모님, 남편 등 총 30여 명이 함께했다.

하회마을에 도착한 일행은 안동을 대표하는 음식인 안동찜닭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하회마을을 둘러봤다. 비가 올 듯 흐리고 후덥지근한 날씨였지만 하회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돼 더위도 잊었다. 탈춤 공연까지 보고 탈 만들기 체험을 시작했다.

"별도 붙이고 달도 붙이고 해도 붙였어요. 예쁘죠?" 조안티 오프레 씨의 아들 성진이는 온갖 색을 사용해 멋진 탈을 만들었고 엄마, 외할머니와 함께 온 훈이는 노랑·빨강의 멋진 정자관을 만들었다. 훈이 엄마는 캄보디아에서 온 후도스 레니안 씨로 때마침 한국에 놀러 오신 친정엄마와 함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한국 생활 8년 동안 친정엄마가 두 번 오셨어요. 제가 캄보디아에 가는 대신 엄마가 오신 거죠. 4년 만에 만나서 정말 기뻐요."

후도스 레니안 씨는 친정엄마에게 한국의 멋진 곳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여행 덕을 톡톡히 봤다며 고마워했다.

이주민 여성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탈 만드느라 아이들만 신난 건 아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홀가분하게 여행 온 응웬베 하오, 전홍록, 휜타니 씨도 아이에게 줄 탈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다. 세 사람 모두 베트남 출신으로 평소에도 가깝게 지내는 사이다.

"태백시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대만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 여성이 살고 있어요."

태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혜정 씨는 한국어 교육은 물론 취업까지 알선하며 이주민 여성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태백권관리단 안동하회마을 향토 문화 체험에는 K-water뿐 아니라 발원지사랑회, 태백다문화센터, 물사랑여성회도 참여해 체험 활동을 도왔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다양한 지원을 통해 다문화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문화 간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K-water 태백권관리단 이세현 단장은 앞으로도 이주민 여성이 한국과 태백에 잘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다문화 가족 한국 문화 탐방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 교실, 미래 세대의 올바른 물 인식을 위한 어린이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 사회 공헌 활동과 지역사회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W

K-water 총무관리처 임상현 대리의 리마인드 웨딩

또 한 번, 나랑 결혼해줄래?

9월호 행복사진관 주제가 리마인드 웨딩이라는 소문에 신청이 쇄도했다. 당첨자는 총무관리처 임상현 대리. 결혼 5년 동안 두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네 번이나 이사를 한 아내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고 했다.

에디터 이정은 **포토그래퍼** 하지영 **장소 협찬** 아뜰리에 드 망고















"결혼 후 아내가 많이 힘들었어요. 두 살 터울로 두 아이를 낳고, 이사를 네 번이나 했거든요. 부족한 저와 함께 사느라 고생이 많은 아내에게 즐거운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대전 본사 총무관리처 임상현 대리가 리마인드 웨딩을 신청한 사연이다. 임 대리는 리마인드 웨딩을 통해 남편으로서 그동안 깎인 점수를 왕창 만회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싱글벙글이었고, 아빠와 함께 멋지게 턱시도를 차려입은 지환이는 아빠 코스프레에 덩달아 신이 났다. 13개월 된 세아만 영문을 모르고 두리번 두리번. 임 대리와 두 아이부터 촬영을 했는데, 지환이 포즈와 미소가 가히 포토제닉상감이다. 네 살답지 않게 포즈 척척, 살인 미소 자동 발사~.

드디어 하얀 드레스를 우아하게 차려입은 엄마 등장. "와~ 예쁘다." 지환이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엄마가 꼭 동화 속 공주님 같았나 보다.

"애 둘 낳고 나니 보이지 않는 곳에 붙은 살이 장난 아니에요. 드레스 피팅하는데 '맞는 드레스가 없으면 어쩌나', '살이 울퉁불퉁 드러나 보이면 어떡하나' 내심이 걱정되더라고요."

아내 김지선 씨는 포토샵으로 팔뚝 살을 꼭 줄여달라고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아이 둘 낳은 엄마치곤 날씬한 편. 보정 없이도 충분히 예뻤다. 아빠와 엄마의 다정스러운 모습은 물론 아이들과 행복한 모습도 찍고, 아이들의 깜찍한 모습도 찍고…. 리마인드 웨딩은 가족 모두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가족의 모습을 모두 사진에 담았다.

리마인드 웨딩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결혼하던 날의 설렘을 다시 느껴보고, 함께 한 약속을 되새기면서 사랑을 확인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하고, 촬영하면서 그 당시의 설렘과 두근거림이 순간순간 스쳐 지나갔어요. 나중에 사진을 보면 프러포즈부터 결혼식까지 5년 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를 것 같아요."

사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바쁘게 살다 보면 웨딩 사진 한 번 들여다보기 힘들다. 그동안 생활 속에 묻혀 있던 행복한 기억들이 이번 리마인드 웨딩을 통해 다시 되살아나고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제는 둘이 아닌 넷이니까 말이다. W

NEWS



아라뱃길 통한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한반도 평화 정착 기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K-water는 서해 도서 발전과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상호 간 협력과 정책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8월 21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해 도서와 아라뱃길을 연계해 서해 도서 지역 주민의 생계, 생존, 생활의 삼중고를 해결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더불어 아라뱃길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천경실련과 K-water는 서해 5도서 수산물을 아라뱃길을 이용해 서울·수도권으로 운송해 판로 확보, 서해 도서–아라뱃길 수산물 특화 지역으로 활성화, 서해 도서 어민의 수익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기타 서해 도서와 아라뱃길을 이용한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기로 했다.



서해 5도 수산물, 아라뱃길 이용해 수도권으로 들여온다!

서해 5도 수산물을 아라뱃길을 이용해 운송하고, 아라뱃길과 한강에 수산물 직판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서해 5도 어선의 시험 입항 행사를 8월 30일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서 개최했다. 이번 입항식은 한국·북한·중국의 접경 지역으로 연평도 포격 등 예측 불가능한 교전, 중국 어선 불법 조업, 접근성 취약에 따른 외부와의 고립 등으로 주민의 생존(生存)·생계(生計)·생활(生活)에 큰 어려움을 직면해온 서해 5도 어민의 소득 증대와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었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오늘은 서해 5도의 수산물이 처음으로 아라뱃길로 들어오는 역사적인 날이다. 앞으로 아라뱃길을 통한 서해 도서 수산물 판로를 확보해 실질적 수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 이와 더불어 아라뱃길이 시민에게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적극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제14회 대한민국 디지털 경영혁신 대상 수상

K-water가 제14회 대한민국 디지털 경영혁신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디지털 경영혁신 대상은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정보화 우수 조직의 성공 사례를 발굴·육성·지원하고 벤치마킹 모범 사례를 제시해 기업의 디지털 경영혁신을 유도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K-water는 대한민국 디지털 경영혁신 대상 중 기업 정보화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업무 프로세스 혁신 등 기업 경쟁력을 도모해 고객을 만족시키는 경영자(CEO)에게 주는 '특별 부문 디지털경영자 대상'을 수상했다.

최계운 사장은 소통, 협업, 재난안전, 스마트워크 기반, 정부 3.0이라는 5대 사업 분야에 대해 디지털 경영혁신을 추진해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 사장은 "앞으로도 디지털 경영혁신과 IT리더십의 발휘에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시화호에서 가족과 멋진 추억을 쌓아보는 건 어때요?”

K-water가 시화 수변 도시 20주년을 맞아, 시화호 일원의 되살아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화호 생생 가족 캠프 이벤트’를 마련한다. 이번 이벤트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시화호 일원의 건강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체험하면서 가족 간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시화 수변 도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K-water 공식 블로그 ‘맛있는 수다’(www.blogkwater.or.kr)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9월 14일까지 접수받고, 당첨자는 오는 9월 16일 블로그를 통해 발표한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50가족은 오는 10월 중 두 차례에 걸쳐 1박 2일 동안 시화호 일대 환경 체험,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과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쌓게 된다.



화성 송산그린시티 글로벌 테마파크 성공적 유치 위한 적극 행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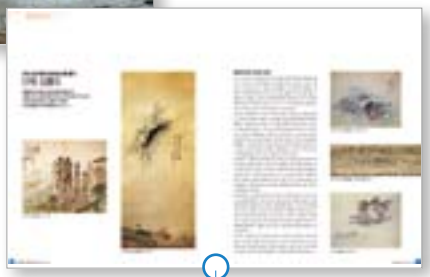
K-water 최계운 사장은 8월 13일 미국 올랜도 유니버설 스튜디오 근교의 로열 퍼시픽 리조트 호텔에서 세계 최대 테마파크 운영사인 UPR(Universal Parks & Resorts)의 마이클 실버 사장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에서 UPR의 마이클 실버 사장은 투자 여건이 조성되면 언제든지 진출할 계획이며, 유니버설이 한국에 진출할 경우 입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때 송산그린시티가 매우 매력적인 최적의 장소임을 확인했다. 또 한국 시장은 테마파크 외에도 CATV, 영화 배급 등 전략적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분 출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다른 테마파크와 차별화하기 위해 K-팝,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와 세계 최고 수준의 워터파크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Dear K-water

K-water 사보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고귀한 의견 한 줄 한 줄이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을 더욱 알차게 합니다.
9월 24일까지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해서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시화호에서 즐기는 여름 한나절

가깝고 북적거리지 않는 휴가지를 찾던 중 만난 '시화호에서 즐기는 여름 한나절'은 딱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조력문화관과 대부 바다향기 테마크가 특히 기대가 됩니다. 낙조전망대와 해솔길도 둘러보며 가족 여행을 즐기려 합니다. 요긴한 정보에 감사 드려요.

김세진 인천시 부평구 부평2동

조선 산수화의 르네상스를 열다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인 단원 김홍도는 풍속화뿐 아니라 남종화, 평생도, 신선도, 진경산수, 초상화 등 그림 전반에 걸쳐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음을 알았습니다. 특히 산수화는 조선 시대의 산천이 다 담겨 있을 만큼 유명한 작품으로, 그의 그림 중 백미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정렬 부산시 중구 망양로

4대강 살리기 사업

팔당댐 근처에 살고 있는지라 주말이면 자전거도로를 질주하는 라이더를 수없이 봅니다. 강변의 변화를 피부로 확확 느끼지요. 날씨 좋은 날, 저녁노을을 보며 강변길을 걷는 맛도 정말 좋습니다. 여름이 가기 전에 캠핑장, 문화관도 체험해봐야겠습니다.

유희상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수돗물값 vs 생수값

'물 VS 물' 기사가 특히 유익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상수도 요금과 생수 가격이 형성되는 비밀을 속 시원히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물은 웬만한 보약보다 건강에 더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맑으며 건강한 물을 만드는 데 K-water가 더욱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부탁드립니다.

김휘곤 울산시 북구 매곡동

2014년 8월호 정답자

육지원 전남 여수시 웅천동
양희자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이현희 인천시 남동구 구월3동



중국에서 가장 먼저 세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주자이거우



홍수와 가뭄 예방에 효과를 보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서해안의 인기 여행지로 부상하는 시화호

정부 3.0

안전행정부
www.gov30.go.kr

투명해서 공공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좋아요!

유능해서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업하는 정부! 좋아요!

서비스가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부! 좋아요!



새로운 국민사랑의 시작, 정부3.0이 함께 합니다



K-water와 함께하는 물 절약 캠페인 ⑨

벽돌이나 페트병으로 화장실 물을 절약하세요

변기를 한 번 내릴 때마다 많은 양의 물이 소비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화장실에서 물 절약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기존 13리터짜리 변기를 6~9리터짜리 변기로 교체할 경우 4인 가족 기준, 하루 50% 이상 절수할 수 있답니다.
변기를 교체하기가 부담스럽다면 변기 수조에 벽돌이나 물을 가득 채운 페트병을 넣어놓으세요.
벽돌이나 페트병 부피만큼 물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또 대소변 구분형 절수 부속품을 설치하면 소변 후 물을 내릴 때
약 30%를 절수할 수 있습니다. 변기의 누수 여부도 수시로 점검하고요.
물이 1초에 두세 방울씩 샌다면 하루에 100리터에 달하는 물을 낭비하게 된답니다.